만인공덕을 위해 심은 느티나무

지정번호	여수-15-2-12-2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여수
수령	610년
수고	28m
흉고둘레	6m

전남 여수시 오림동 422-2
34°45′31.18″N
127°00′16.35″E

남편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심은 보호수(여수-15-2-12-2) 느티나무는 오림동 이마트 맞은편의 대로 옆에 2그루가 자라고 있다. 고목의 느티나무 2그루가 모두 보호수이다. 2그루 중 한 그루의 보호수(여수-15-2-12-1) 느티나무는 2016년 대한민국 보호수 100 선정에서 소개를 한 바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느티나무는 그 옆의 보호수(여수-15-2-12-2)이다. 이 느티나무가 있는 곳은 옛날 좌수영성 서문에서 5리 지점에 있다는 뜻의 '오리정'이 있던 곳이다. 지금은 오리정이 있었던 곳에 '오림정'이 새롭게 지어졌다. 나무나이는 6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 높이는 28m로 기록하고 있으나 주요 줄기가 고사하였으므로 이보다 낮으며, 가슴높이둘레는 60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4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3m 정도에서 몇 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작은 가지가 나와 펼쳐져 있다. 주요 줄기가 고사하여 보호를 받은 후에 새로운 가지가 나온 형태이며, 생육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다. 2008년 초에는 보호수 일부가 불에 타기도 하였다. 이 느티나무는 홀어미 느티나무 또는 육모정 느티나무라 일컫는 전설을 지니고 있다. 전설은 한곳에 있는 보호수 2그루가 동일하며, 지난 2016년에 이미 소개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이야기를 축약한다. 옛날에 오림동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은 병을 얻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부인은 삼일장으로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부터 밤이 되면 죽은 남편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이와 같은 일이 밤마다 계속되는 어느 날 부인이 대들보에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였다. 그 순간 길을 가던 노승은 이 같은 현장을 목격하고 생명을 구한 후 부인에게 "남편은 저승으로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으니 만인공덕을 쌓아야 극락을 가게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부인은 "재물이 없으니 어찌 만인공덕을 할 수가 있습니까"하고 노승에게 물었다. 이에 노승은 "만인공덕은 재물만이 아니라 정성이 있으면 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개천에 돌다리를 놓으며, 길가는 행인에게 쉬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모두 만인공덕입니다"라고 말하고는 가던 길로 떠났다. 그 후 부인은 남편의 극락왕생을 위한 만인공덕을 생각한 끝에 부부처럼 느티나무 한 쌍을 심었다. 부인은 이 느티나무가 크게 자라 그늘이 우거져 오고가는 행인이 쉬어가는 자리가 되는 것도 만인공덕이라 여겼다.